

일본의 낙농정책*

허 덕

낙농산업은 사료가
격 상승, 원유수급
불균형 등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의 낙농경영안정정
책과 더불어 사료
관련 정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낙농관련정책,
우유 유통관련 정
책들을 살펴본다.

1. 머리말

2006년 말부터 배합사료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료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국제 사료 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상승, 곡물 수출국들의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한 곡물 확보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젖소의 사료원인 알팔파, 먼실 등 조사료 가격도 2008년 9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보다 각각 61%, 103% 상승하였으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TMR) 가격 또한 동기대비 약 32% 상승하였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유(原乳) 생산비의 증감률이 100분의 5 이상일 경우 가격을 조정하게 되어 있다. 이 제도에 따라 2008년 8월 16일자로 유대(乳代)를 20.5% 인상하여 낙농경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료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부산물 수입원인 초유폐기 암송이지, 노폐물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수지의 개선 역시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처럼 우리 낙농산업은 사료가격 상승, 원유수급 불균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낙농경영안정정책과 더불어 사료관련 정책, 생산성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낙농관련정책, 우유 유통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일본의 낙농정책

일본은 낙농경영안정대책을 매우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 중 경영안정정책으로는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안정대책과 도부현 낙농긴급 경영강화대책, 대가축 특별지원 자금융통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 본 내용은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에 게재된 축산정책 자료 중 낙농정책을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덕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huhduk@krei.re.kr, 02-3299-4261)

사료수급정책으로는 낙농 사료기반 확대 추진사업, 에코 피드 등 이용 촉진사업, 청예 옥수수 생산 긴급확대사업, 사료증산 수탁 시스템 확대 사업, 사료용 쌀 도입 정착화 사업, 미활용 자원 사료화 촉진사업, 조사료 자급률 향상 종합 대책 사업, 축산 생산성 향상 촉진 사업, 가축사료 특별지원 자금융통 사업, 사료가격 상승에 대한 이해도 증진 사업 등 매우 다양한 사업이 도입되어 있다. 이 밖에도 생산성향상정책과 유통개선정책 그리고 우유소비확대정책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경영 안정 정책

표 1 일본의 경영 안정 정책

사업명	사업목적	실시주체	소요액수	담당부서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안정 대책	가공원료유 가격하락시 생산자 적립금으로 일부 보전함을 통해 원유의 재생산 확보 및 우유 및 유제품의 안정공급에 기여	지정생유 생산자 단체 등	6,000 (백만엔)	축산기획과
도부현 낙농긴급 경영강화대책	수익성이 큰 폭으로 저하할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획 실시와 낙농가 계획을 지원	민간 단체	9,184 (백만엔)	축산기획과
대가축 특별지원 자금융통	경영 안정 및 후계자에게의 경영계승을 원활하게 추진	(사)중앙 축산회	40,000 (백만엔)	축산기획과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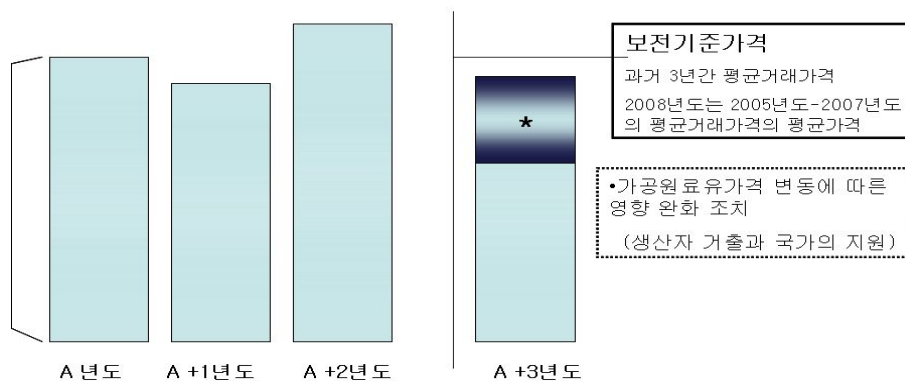
경영안정정책에는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안정대책, 도부현 낙농긴급경영 강화대책, 대가축 특별지원 자금융통 등이 있다.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안정대책 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보급 제발, 생산자 적립금의 징수·관리, 보전금 교부 등의 업무를 실시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경영안정 대책기금을 지원하는데, 가공원료유 가격이 보전기준가격(과거 3년간의 평균 거래가격)을 밑도는 경우, 가공원료유 생산자에게 보전금(가격 하락분의 80%)을 지원한다.

그림 1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안정 대책사업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안정대책사업)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도부현 낙농긴급 경영강화대책 사업(신규사업)

① 도부현 낙농 긴급경영강화 지원사업

도부현 낙농 긴급경영강화 지원교부금 사업	이 사업에서는 낙농경영 강화계획(3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계획을 실시하는 낙농가에 대해, 4분기마다 「낙농 긴급경영강화 지원교부금(경산우 1두당 16,500엔/년 이내)」을 1년간에 한하여 지원한다. 낙농 경영 강화 계획의 내용은 자급사료 생산 확대, 사육관리 개선, 육용우 부문 도입 등이다.
도부현 낙농 긴급경영강화 추진사업	이 사업에서는 전국회의·블록회의(지자체 단위 이하의 회의) 등을 개최하거나 관련된 계획을 실시하는 낙농가에 대해 필요한 지도 등을 실시한다.

② 낙농 사료기반확보 추진 사업

이 사업에서는 낙농가, 유업체, 행정관계 등이 일체가 되어 사료자급률 향상 등의 목표를 수집하고 자급사료를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는 우량 사례 조사 등을 실시한다.

대가족 특별지원 자금융통사업(신규사업) : 축우 농가 특별지원 자금융통 사업

이 사업은 낙농 및 육용우 경영에 대해 장기·저리 차환자금 융통을 실시하는 농협 등 융자기관에 대해 이자를 지원함과 동시에 보증기반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영 개선 자금은 매년 약정상환액 중 당 연도에 상환이 곤란한 부분을 차환할 수 있는 로링 방식의 자금 융통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경영계승 자금은 후계자가 부친에게서 대가족 경영을 계승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부채를 일괄해 차환하는 자금을 융통하는 사업이다. 보증기반 확충은 위에 열거한 자금을 원활히 융통하기 위한 보증기반의 확충에 노력하는 사업이다.

사료·원유가 상승에 대한 긴급 대책은 2008년도에만 적용하였다. 이 대책은 기존 자금의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사업이며, 대출금리 3%를 최고로 하는 기존의 축산특별자금의 금리 상당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사료수급 정책

일본의 사료수급 정책 또한 매우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각 사업의 목적 및 구성은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낙농 사료기반 확대 추진사업(확충사업)

먼저 낙농 사료기반 확대 추진사업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낙농경영 확립을 목적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경산우 1두당 사료작부면적이 기준 면적(홋카이도 40a/두, 도부현 10a/두) 이상인 농가 중에서 환경보전, 사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생산자에게 사료작물 작부면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한다. 즉,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환경보전, 사료자급률 향상에 이바지하는 계획을 실시하는 낙농 경영
- ② ①의 계획과 더불어 사육관리 변경에 의한 환경부하 경감, 사료자급률 향상에 노력하는 낙농경영

사료수급정책에는 낙농 사료기반 확대 추진사업, 국산 사료 자원 활용 촉진종합 대책사업, 가축사료 특별지원 자금융통 사업, 사료가격 상승 등 이해도 증진 긴급대책 사업 등이 있다.

표 2 일본의 사료수급 정책

사업명	사업목적	실시주체	소요액 (백만엔)	담당부서
낙농 사료기반 확대 추진	축산 환경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료기반 확대	(사)중앙낙농회의	5,446	축산기획과
에코 피드 등 이용 촉진	청예 옥수수 및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과 자금 가능한 국산사료의 생산 및 이용 확대	(사)일본초지축산종자 협회,(사)배합사료 공급안정기구,(사)중앙 축산회	6,867	축산진흥과
청예 옥수수 생산 긴급확대	토지기반에 기초를 둔 기축생산으로 전환 추진	(사)일본초지 축산종자협회	1,217	축산진흥과
사료중산 수탁 시스템 확대	사료생산을 담당하는 수탁조직 육성·확대	전국연	968	축산진흥과
사료용 쌀 도입 정착화	사료용 쌀의 이익 활용에 필요한 기계 등의 정비	(사)일본초지축산종자 협회,(사)배합사료공급 안정기구	3,140	축산진흥과
미활용 자원 사료화 촉진	식품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을 사료로 이용	(사)중앙축산회, (사)배합사료공급 안정기구	434	축산진흥과
조사료 자급율 향상 종합 대책	토지기반의 기초를 둔 축산경영 확대	(사)일본초지 축산종자협회	867	축산진흥과
축산 생산성 향상 촉진	축산의 생산현장에서 사육관리 본연의 자세를 점검·검증 및 최대한의 효율적인 생산 추진	(사)중앙축산회	243	축산진흥과
기축사료 특별 지원 자금유통	사료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유통	(사)중앙축산회	68,000	축산기획과
사료가격 상승 등 이해도 증진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계 등의 정비 추진	(재)축산환경정비기구	13,409	축산기획과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국산사료 자원 활용 촉진 종합대책 사업(약중사업)

● 청예 옥수수 생산 긴급확대 사업(신규사업) : 저급 사료 중산 긴급대책

현재 사료작물 이외의 작물이 작부되어 있는 밭이나 경작포기지에 새롭게 청예 옥수수나 수수 등 고영양 사료작물을 작부하는 경우, 계획면적에 따라 조성금으로 10a당 1만 2천 엔을 지원한다.

● 사료중산 수탁 시스템 확대 긴급대책사업(확충사업) : 저급 사료 중산 긴급 대책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매스 작물 생산의 긴급 추진 사업은 청예 옥수수 등 바이오매스 작물의 긴급한 생산 확대를 위해 사료생산 수탁을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바이오매스가 큰 장대(長大)작물의 작업수탁면적을 3년간 확대하는 연결체(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결체에 해당하는 용어를 컨트랙터라 부른다)에 대해 단년도에 한해 바이오매스 작물 작부작업 및 수확작업에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연결체 업무 평준화 촉진(수탁 작업 종목 확충)사업은 연결체 육성·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수탁면적 조성에 대해 사료용 쌀의 작부작업, 사료용 쌀의 수확작업 등을 보조대상 수탁작업 종목에 새롭게 추가한 사업이다.

● 사료용 쌀 도입 정착화 긴급 대책 사업(확충사업)

이 사업에는 사료용 쌀의 이용확대를 위한 검토회 개최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계속사업), 사료용 쌀의 이익 활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계속사업), 사료용 쌀(2008년산

대상)의 이익 활용을 모델 실증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확충사업)과 사료용 쌀을 주식용 쌀과 구분하여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신규사업), 배합사료 원료로서 사료용 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시설의 정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신규사업) 등이 있다.

• **미활용 자원 사료화 촉진 사업(확충사업)**

이 사업 중 지역 에코 피드 이용체제 확립을 지원하는 사업(확충사업)은 지역에서의 미 활용자원의 사료이용을 진행시키기 위한 관계자에 의한 제휴, 지역 정보의 분석 등을 실시하고 동시에 식품부산물 사료화를 사업화하기 위해, 전문기술·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지역 연수회 개최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검토·조언을 담당하는 전문 기술자를 지역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 **조사료 지급을 향상 종합 대책 사업(확충사업)**

이 사업은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 초지를 고생산성 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조사료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방목에 의한 효율적인 사료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방목을 실시하는 생산자 집단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방목 경험이 있는 소를 대출(렌탈 카우)하는 구조를 지역에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사료작물 종자의 증식 보관을 실시함과 동시에 벼 발효 조사료용 등의 생산 확대에 대응한 전용품종 종자 공급체제를 긴급하게 정비하는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 **축산 생산성 향상 촉진 종합대책사업(확충사업)**

이 사업에는 전국 및 블록단계(지자체 이하 단계)에서 사육기술 보급 등에 의한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자로 구성된 보급 추진 검토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있다. 아울러 지역단계에서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육관리 기술 등에 관한 스터디 그룹을 개최하고, 이 외에 상담 창구의 설치, 지역에 있어서의 축산 농가의 조언·지도사업(확충사업), 선행 사례 조사·분석(확충 사업), 기술 보급용 팸플릿 등을 작성·배포하는 사업 등이 있다.

• **가축사료 특별지원 자금융통 사업(확충사업)**

배합사료가격(보전금을 제외한 농가 실질부담 가격)이 상승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노력을 근거로 하여 생산비가 수익을 웃도는 수준(지표로서 단위 당 배합사료 가격 수준을 설정)이 된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구입자금 융통을 실시하는 융자기관에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금의 용도는 사료비에 국한하며 대출 이율은 2008년 3월 현재 1.25%로 설정되어 운용중에 있다. 상환기한은 10년(그 중 거치기간 3년) 이내이며 대출 한도액은 비육우의 경우 두당 4만 엔, 젖소의 경우 3만 엔, 번식 암소의 경우 8천 엔이다. 돼지 역시 두당 8천 엔이며, 닭의 경우 100수당 4만원이 한도이다. 이자 보급률은 농업 근대화 자금의 기준 금리와 대출 이율과의 차이이며, 융자기관은 농협, 농협연, 농림중앙금고, 은행 등이다. 이때 도도부현 농업신용기금협회가 실시하는 채무보증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사료가격 상승 등 이해도 증진 긴급대책 사업(신규사업)

이 사업 내에는 추진 협의회 등 개최에 대한 지원, 홍보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추진 협의회 등 개최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는 사료가격 상승이나 생산자의 생산성 향상 계획 등에 대해 생산자, 가공·유통업자 및 소비자 사이에 인식이나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단계에서의 중앙추진협의회, 지방단계에서의 지방추진협의회 등을 개최하는데 지원한다.

홍보개발 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생산자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 생산자 단체 등이 실시하는 포스터나 팸플릿을 이용한 캠페인, 가두선전 등 홍보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외에 도·소매 단체 등 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다. 이는 도·소매단체나 생협 등이 실시하는 축산물 가격 인상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에 지원하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 정책

표 3 일본의 생산성 향상 정책

사업명	사업목적	실시주체	소요액수	담당부서
낙농 헬퍼 이용확대 추진사업	여유있고 생산성이 높은 낙농경영의 실현을 도모하고, 신규 취농 및 원활한 경영계승을 촉진하여 일본 낙농의 안정 발전에 기여	(사) 낙농헬퍼 전국협회	421 (백만엔)	축산 기획과
낙농 생산기반 개선 지원 대책 (낙농 생산성 향상)	젖소의 생애 생산성 향상 및 고도 번식기술 활용을 위한 계획과 사육관리 기술·방법의 향상에 대한 계획을 지원하여 낙농 생산기반 개선	(사) 가축개량 사업단	751 (백만엔)	축산 진흥과
축산·낙농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인용 보조 리스 사업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계 등의 정비를 추진	(재) 축산환경 정비기구	13,409 (백만엔)	축산 기획과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생산성향상정책에는 낙농 헬퍼 이용확대 추진사업, 낙농 생산기반 개선 지원 대책 사업, 축산·낙농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인용 보조 리스 사업이 있다.

낙농 헬퍼 이용확대 추진사업

이 사업 중 이용 확대 보조금 교부사업은 낙농가에 대해 이용 날짜 증가에 대응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헬퍼 요원 확보·양성 사업으로 헬퍼 취업 희망자 모집, 상담 활동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헬퍼 요원 양성, 연수회를 개최한다. 질병 시의 헬퍼 이용 원활화 사업으로 질병 시 헬퍼 이용 요금을 경감하는 상호지원제도를 실시하는 이용조합의 상호지원조직의 광역화와 이용조합의 통합 등 상호지원제도의 보급·정착화에 노력하는 경우, 경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성(지원)한다.

신규 취농·경영계승 추진사업은 신규 취농 희망자 및 경영이양 희망자의 정보 수집 등을 실시하여, 신규 취농 및 원활한 경영계승을 추진한다.

낙농 생산기반 개선 지원대책 사업(확충사업) : 낙농 생산성향상 대책

이 사업 중 우량 종축의 고도 이용에 의한 유전적 능력 향상(능력이 높은 소 개량)사업은 고능력 젖소군(群)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지역단계에서의 검토회를 실시하거나 생애 생산성 향상에 불가결한 체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유전적 개량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실시한다. 또한 젖소군의 유전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량 수정란과 공란우 등 도입이나 고도의 번식기술을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 지원한다.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사육관리 기술 개선(튼튼하고 건강한 소 개량) 사업은 젖소의 사육관리 기술 개선에 있어 필요한 사료급여 정보, 번식 정보 등의 수집을 실시하고, 수집한 사료급여 정보나 유전적 능력 정보 등에 근거한 적절한 기술지도, 기술 지도원 연수 등의 실시와 유량, 유질 개선 지도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축산경영 생산성 향상 지원 리스사업(신규사업) : 축산·낙농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인용 보조 리스 사업

축산경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등을 축산농가(대출 대상자)에 리스하는 사업 실시 주체에 대해 해당 기계 등 구입비의 1/3을 지원한다. 대출 대상자는 대상 기계 등을 2/3의 비용으로 리스 방식에 의해 도입하며, 대상 기계는 축산경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기계 등이다.

유통개선 정책

유통개선 정책에는 광역 원유 유통체제 확립사업, 유업재편 정비 등 대책 사업, 지정 생유 생산자 단체 보급 교부금, 가공 원료유 확보 특별사업이 있다.

표 4 일본의 원유 및 우유 유통개선 정책

사업명	사업목적	실시주체	소요액 (백만엔)	담당부서
광역 원유 유통체제 확립 사업	원유의 유통비용 절감과 정확한 수급조정을 위한 광역적 원유 유통체제 확립	(사)중앙낙농회의	300	우유유제품과
유업재편 정비 등 대책 사업	유업공장의 재편 합리화와 집약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저유시설 집약화 등을 지원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 등	4,120	우유유제품과
지정생유 생산자 단체 보급 교부금	거래조건이 불리한 가공 원료유의 생산자 보급금 교부	지정생유생산자단체	22,500	우유유제품과
가공 원료유 확보 특별 사업: 원유수급 관련대책 강화	일과성 수요에 대응하는 가공원료유를 공급하는 지정생유생산자단체 지원	(사)중앙낙농회의, 지정생유생산자단체	1,392	우유유제품과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광역 원유 유통체제 확립사업

이 사업에는 중앙 단계에서의 사업과 지방 단계에서의 사업이 있다. 중앙 단계의 사업은 통일적인 유량측정 및 샘플채취 방법 검토, 매뉴얼 작성, 지도자 연수, 회의 개최 등 국제화 진전 등을 포함한 생산구조 연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방 단계의 사업은 통일적인 유량측정 및 샘플채취 방법 보급·정착을 위한 연수회 개최, 유가 테이블 검토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방단계 사업은 주로 통일적인 유량계 및 샘플러를 밀크 탱크로리에 설치하는 것이 사업내용의 핵심이다.

유업재편 정비 등 대책 사업

유업재편 정비 사업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업공장을 정비할 것인가? 하는 대책과 폐업공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대책 그리고 원유 및 우유의 공동 배송시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대책, 집·송유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진 정비할 것인가? 하는 대책, 마지막으로 위의 재편대책들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추진대책으로 구성된다.

먼저, 효율적인 유업공장 정비대책은 우유·유제품 제조의 합리화를 위해 복수의 유업체가 제휴하여 실시하는 유업공장의 신·증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폐업공장 대책은 고도의 위생관리 수준을 갖춘 유업공장에 생산을 집약하기 위해 유업공장의 폐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공동 배송시설 정비대책은 우유·유제품의 유통 합리화·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 배송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집·송유 합리화 추진 정비사업은 잉여 원유의 일시적인 수급조정을 위한 잉여 원유처리 기능을 가지는 거점 시설 또는 집·송유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거점시설로서의 대형저유시설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재편 정비 추진 대책은 위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단체 등이 실시하는 전국회의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정 생유 생산자 단체 보급 교부금

이 사업은 거래조건이 불리한 가공 원료유에 대해 생산자에게 보급금(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지정 생유(원유) 생산자단체가 생산자에게 보급금을 교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금 단가는 원유 kg당 11.55엔이며, 195만 톤을 한도로 지급된다.

가공 원료유 확보 특별 사업(신규사업) : 원유수급 관련대책 강화

이 사업은 우유의 일과성 수요에 대응하여 가공원료유를 생산하는 지정 생유생산자단체, 그중에서도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에 대해 기장·기록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 지정 생유생산자단체에 한하여 가공원료유 생산자 지원금 상당 금액을 지원한다. 즉, 대상 원유는 일과성 수요에 대응한 가공원료유로 수량한도 195만 톤을 포함하여 최대 207만 톤까지 지급된다. 지원금 단가는 11.55엔 /kg이다.

그림 2 가공 원료유 확보 특별 사업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소비확대 정책

표 5 일본의 소비확대 정책

사업명	사업목적	실시주체	소요액(백만엔)	담당부서
우유 유제품 소비 확대 특별사업	우유·유제품 소비확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사)일본낙농유업협회, (사)중앙낙농회의, (사)전국농협유업협회 등	699	우유 유제품과
원유 계획생산 원활화 지원	우유가격 인상에 의해 소비가 감소할 경우 우유 가격인상의 영향을 완화	(사)중앙낙농회의	1,225	우유 유제품과
광역 지정단체 신규 수요개발 지원	새로운 탈지유 수요 개발을 지원함	(사)중앙낙농회의,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낙농업협동조합연합회	412	우유 유제품과
원유 수요구조 개혁사업	수입품과 경쟁력을 가진 유제품용 원유 공급확대를 지원 및 추진	(사)중앙낙농회의	9,637	우유 유제품과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소비확대 정책에는 우유 유제품 소비확대 특별사업, 원유 계획생산 원활화 지원, 광역 지정단체 원활화 지원, 광역지정단체 신규수요개발지원, 원유수요구조개혁사업이 있다.

우유 유제품 소비확대 특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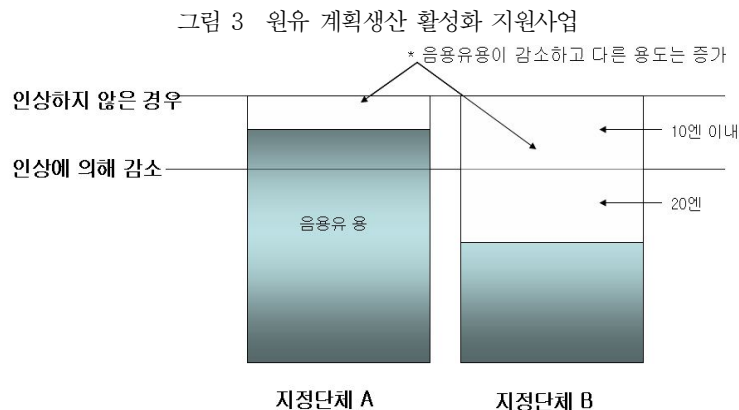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1) 기능성의 조사 및 보급개발, 2) 수급실태 조사 및 신상품 개발 촉진, 3) 낙농에 대한 이해 양성 활동 추진, 4) 일본 우유·유제품의 가치 향상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성의 조사 및 보급 개발사업은 우유·유제품의 기능성·유용성 등의 조사 및 학술논문의 수집·정리, 창조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상품 소개 등을 통해 보급개발 촉진 등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실태 조사 및 신상품 개발 촉진 사업은 우유·유제품의 수요동향 등에 관한 조사, 소비자 요구 파악, 신상품 개발 촉진 등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낙농에 대한 이해 양성 활동 추진사업은 낙농에 대한 이해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주체가 되는 낙농가 육성 및 활동 실시 목장의 지도, 자가 우유·유제품 제조를 위한 기술 연찬 등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본 우유·유제품의 가치 향상 대책사업은 제조·유통단계에서의 품질관리 고도화, 우유·유제품을 이용한 요리강습회 개최, 우유판매점이 실시하는 보급 개발 활동 등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유 계획생산 원알와 지원사업(신규사업) : 음용유를 위한 수요 집계 시의 세이프티 넷(안전망) 대책

이 사업은 생산자단체가 실시하는 우유가격 인상에 의한 소비감소에 따른 음용유 전용이 감소(그 외 전용 용도가 증가)한 지정 생유생산자단체에 대한 「과도보상」을 지원한다. 즉, 우유가격을 인상하여 음용유 소비가 줄어들었지만, 줄어든 부분 중 우유가격 인상에 의해 평균적으로 줄어든 부분을 기준으로 더 또는 덜 줄어든 부분에 대해 차별적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다. 보전금은 평균 감소율을 초과한 감소분에 대해서는 kg당 20엔을, 평균 감소율 이내의 감소분에 대해서는 kg당 10엔 이내를 지원하며, 거출금액은 생산자 단체 음용유용은 kg당 10전, 조성금 음용유용은 kg당 30전을 거출한다.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광역 지정단체 신규 수요개발 지원사업(신규사업) : 음용유용 수요 집계 시의 세이프티 넷 대책

이 사업은 전국연합회가 새로운 탈지유 수요를 개발하여, 해당 수요용 원유를 공급하는 경우에 장려금으로 kg당 10엔을 지원하며 전국연합회가 탈지유를 새롭게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유입공장의 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원유 수요구조 개역사업 : 원유 수급관련 대책 강화

이 사업으로는 지정 생유생산자단체가 치즈, 액상유제품 및 발효유용 원유를 기준 수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장려금으로 신규 확대분에 대해서는 12엔/kg, 증가 실적분에 대해서는 10엔/kg을 지원한다.

3. 일본의 낙농정책에서 배워야 할 점

일본에서는 낙농관련 주체를 고려한 정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낙농산업 관련 단체들이 모여 검토회 등을 거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정책의 실시단계에서도 계속되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아울러 생산자와 가공·유통업자 그리고 소비자 사이의 의식과 인식의 공유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서로간의 어려움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료기반 확대정책에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특히 국내 미이용, 저이용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생산자와 연계시키는 노력 등을 통해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조사료 정책은 환경문제와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친환경축산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미국이나 EU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일본에는 사료가격 안정기금과 곡물비축제도를 병행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사료가격 안정 기금을 도입하여 폭등하는 사료가격의 충격 완화가 필요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곡물비축제도에 사료곡물을 추가하여 사료의 수급불안 및 가격폭등 시 비축 사료곡물을 방출하는 정책도 요구된다.

넷째, 컨설팅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유질 향상을 위한 지도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유방염 등 각종 질병의 방제대책을 강구하며 유질 검사의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수의중심의 컨설팅을 개편하여, 수의·환경·경영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컨설팅 체계(one-stop servic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헬퍼 육성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낙농 헬퍼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기술수준이 높지 않고 이용률도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전문적인 낙농 헬퍼를 육성하여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여섯째, 농기계 등의 리스 사업을 통해 농가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인다. 우리나라도 시설·기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공급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농기계 리스를 통한 비용절감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곱째, 생산자, 가공·유통업자 등에 지원하는 사업 중 일시적으로 자금유통이 어려울 때 지원하는 정책이 다양하다.

일본에서는 낙농관련 주체를 고려한 정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낙농산업 관련 단체들이 모여 검토회 등을 거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정책의 실시단계에서도 계속되고 있다.